

유희경, "인미공 열 전- 김인배," 한국 문화미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 (2005)

인미공 "열"전 - 김인배

김인배

작가 성장 프로젝트

2005. 9. 7 - 9. 16

강박적 상상력과 언캐니

예술은 강박관념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강박증 혹은 파라노이아적 심리 기제는 김인배에게 오면 상상력의 근원으로 자리매김 된다. 이에 근간한 작가의 작품세계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망막중심의 인간의 사고를 교정하며 전복시키는 작품이고, 두 번째는 소위 초현실주의적 '언캐니'(uncanny)의 개념을 환기하는 작품이다.

입체를 평면화한다든지(레몬, 빠데리 바베트 등), 평면과 입체를 교묘히 결합하는 작품(수영 잘하고 싶은 여자 등)들은 결국 길들여지고 관리되는 시각중심적 사고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아이러니와 패러독스가 녹아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즉 시각적 권위에 대한 저항, 즉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혹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도록 강제되고 있는가 하는 등의 시각적 메커니즘에 대한 담론을 환기한다는 것이다. 물론 작가의 이러한 기술(記述)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유효한 까닭은 단순히 시각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자체에 반성과 사유라는 일종의 비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김인배 작업의 하이라이트는 '언캐니'한 오브제들이다. 굳이 번역하자면 '두려운 낯설음 혹은 기이함'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이 개념은 프로이트적 정신분석학의 시각적 수사의 일종으로 두려움과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 미학적 쾌를 일으킨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인 '지리디슨 밤비니'는 우선 제목부터 텍스트 해석의 대상으로 자리한다. 일견 다다적 개념으로 느껴지는 제목은 전치 혹은 하이브리드적 혼성교배라는 형식에 의해 탄생한 오브제에 합당해 보인다. 얼굴이 있을 것 같은, 얼굴 없는 뒷모습만 존재하는 머리와 제각기 다른 방향의 발을 가진 이 기이한 생물은 우리의 삶에서 실체 혹은 진실을 파악하는 일이 어쩌면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신화적 공포를 환기한다.



New York 533 West 25th Street, New York, NY 10001 TEL 212.242.6343 / 212.242.6484
Seoul 270 Yonji-Dong, Jongno-Gu, SEOUL KOREA TEL 82.2.708.5050
www.doosangallery.com



김인배의 작업이 돋보이는 이유는 드로잉이 오브제로 가시화되고, 그 오브제가 기술적으로 새로운 디테일과 수공성이 부여된다는 형식적인 프로세스의 정교함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강박증과 파라노이아 같은 개인의 내밀한 심리기제가 진지하고 심도있게 개진된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이런 형식과 내용의 오토매틱하고 교묘한 긴장관계 속에서 그의 작업은 의식과 무의식이, 낮익음과 낯설음이, 사회적 코드와 개인적 코드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안과 경이가 무엇도 먼저랄 것도 없이 혼용되어 나타난다. 바로는 이 지점이 김인배의 작업의 충만한 미학적 쾌가 발휘되는 핵심이 아닐까.

유경희, 미술비평





DOOSAN
Gallery

New York 533 West 25th Street, New York, NY 10001 TEL 212.242.6343 / 212.242.6484
Seoul 270 Yonji-Dong, Jongno-Gu, SEOUL KOREA TEL 82.2.708.5050
www.doosangallery.com

